

미 있는 지점을 얻어 이를 발표하고자 한다.

— 22 —

성인 미세 변화 신증후군의 Prednisolone 치료 효과

순천향의대 내과

이상무 · 황승덕 · 이희발

성인 미세변화 신증후군 환자의 prednisolone(PDL) 치료효과와 최초 치료기간이 추적중 재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16세 이상의 환자로서 광학, 면역형광 및 전자현미경 소견상 미세 변화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되고 최초 PDL 투여후 2개월이상 추적된 환자 45명의 병원기록을 조사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는 남자 37명(연령: 16~48, 평균 26.4세), 여자 8명(연령: 18~37, 평균 28.5세)이었고 추적기간은 최소 2개월, 최장 73개월, 평균 17.6개월이었다. 최초 PDL의 용량과 기간은 체중 60 kg 이상인 환자에서는 120 mg 을 격일 1회, 체중 60 kg 미만인 환자에서는 100 mg 을 격일 1회로 1~2개월간 투여하였다. 관해는 치료후 24시간당 뇨단백 배설이 200 mg 미만인 경우 완전관해, 200 mg 이상 1 g 미만인 경우 부분관해로 하였고 1 g 이상인 경우에는 반응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일단 관해를 보인 환자에서 24시간 뇨단백배설이 1 g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부종의 재발과 함께 혈청 알부민 농도가 3 g 미만인 경우 재발로 하였다.

45명중 34명(75.6%)에서는 최초 PDL 치료후 관해(26명은 완전관해, 8명은 부분관해)를 보였고 11명(24.4%)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관해를 보인 환자 38명중 10명에서는 최초치료 기간이 1개월, 24명은 2개월이었다. 관해를 보인 환자 34명중 15명(44.1%)에서는 관찰기간 2~53개월중 재발이 없었다.

1개월 치료군(10명)에서는 1년 이내에 5명에서 6회, 2년 이내 6명에서 총 13회 재발이 있었다. 2개월 치료군(24명)에서는 1년 이내에 9명에서 11회, 2년 이내에 12명의 환자에서 총 20회 재발이 있었다. 두 치료군사이에 재발 환자수와 재발 횟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개월 치료군(34명)중 치료시작 1개월후 24시간 뇨단백배설이 측정된 환자 18명중 관해를 보인 환자는 9명으로 이들 중에서는 1년 이내에 4명에서 4회, 2년 이내에 4명에서 6회만 재발하여 1개월 치료군에 비하여 재발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1개월 후의 반응이 없

었던 9명중 2개월 치료후에 6명에서 관해를 보였고 3명에서는 지속반응이 없었다.

성인 미세변화 신증후군 환자의 75.6%가 최초 PDL 치료 1~2개월후 관해를 보였으며 이중 44.1%에서는 관찰기간 2~53개월간 재발이 없었다. 최초치료 1개월 후 이미 관해를 보인 환자중에서 1개월 추가 치료를 받은 환자군(2개월 치료군: 9명)에서는 1개월로 최초 치료를 중단한 환자군(10명)에 비하여 재발 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1개월후 반응이 없었던 9명중 2개월 치료후 6명이 관해를 보였으므로 최초치료 기간을 2개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 23 —

소성사구체경화증에 의한 성인 신증후군

서울의대 내과

김순배 · 채동원 · 안규리

한진석 · 김성권 · 이정삼

병 리 과

김 용 일

신증후군은 심한 단백뇨, 저혈청단백 전신부종을 특징으로 하는 임상 증후군이며, 소성사구체경화증은 사구체에 소성, 분절성 경화부위가 있는 질환으로 원발성 성인 신증후군의 15~2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증후군에서 소성사구체경화증의 빈도는 알려져 있으나 소성사구체경화증의 임상상이나 임상경과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연자들은 1979년 1월부터 1985년 6월 사이에 서울대 학교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신생검을 시행한 원발성 신증후군 269례중 소성사구체경화증으로 확인된 환자 50명(16.8%)을 대상으로 주요 임상상, 조직면역형광검사, 임상경과, 예후결정인자등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1) 평균 연령은 15~24세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성비는 2.8 : 1이었다.

2) 주요 임상상의 빈도는 고혈압 26%, 육안적 혈뇨 35%였다.

3) 검사소견은 현미경적 혈뇨 42%였고, 크레아티닌치는 49%, 콜레스테롤치는 94%에서 상승되었다. 한랭글로불린, 항핵항체의 양성율은 각각 33%, 9%였고 C₃ 및 C₄는 각각 4.3%, 2.3%에서 감소되었다.

4) 조직면역형광검사를 시행한 30례중 26.6%에서 침착이 없었으며, IgG는 20.0%, IgM 26.7%, IgA 0%,

C, 53.3% 및 fibrinogen이 56.7%에서 침착되었다.
 5) 25주이상 추적관찰한 30례의 임상경과는 완전관해 26.7%, 임상적 관해 23.3%, 변화가 없었던 경우 36.7%, 악화 13.3%였다. 완전관해나 임상적 관해에 도달한 15례중 관해가 지속된 경우 46.6%, 재발 53.4%였다.

6) 고혈압 및 혈뇨의 유무, 단백뇨, 혈청 콜레스테롤, 뇨독증, 선택성 지수 및 사구체경화의 정도등의 인자와 임상경과는 통계적인 의의가 없었다.
 이상에서 소성사구체경화증은 성인 신증후군의 16.8%였고, 완전관해 26.7%, 악화 13.3%였으며 초기 증상이나 검사소견은 임상경과와 무관하였다.

- 24 -

膜性糸絨體腎炎 腎組織에서 HBsAg, HBcAg 및 HBeAg의 證明

서울醫大 內科
 李正相·金大中·安圭里
 韓鎮錫, 金聖權
 病理科
 金 勇 一

B型肝炎바이러스는 우리나라 成人 糸絨體腎炎의 주요 원인으로, 原發性 糸絨體腎炎 患者中 B型肝炎바이러스 表面抗原의 陽性率은 20%에 달하며, 膜性, 膜增殖性을 비롯한 다양한 病理組織學的 양상을 보인다. B型肝炎바이러스 抗原으로는 表面抗原, 核抗原, e抗原이 알려져 있고, 血中 表面抗原이 陽性인 糸絨體腎炎患者 腎組織의 상단수에서 表面抗原과 核抗原이 확인되었으며, e抗原에 대하여도 외국문헌상 抗原의 存在가 證明되었으나, 아직 精確한 原因抗原이나 沈着機轉에 관하여는 論難이 있다.

演者들은 2年前부터 시작된 浮腫을 主訴로 내원한 38歲 男子의 腎生檢組織에서 表面抗原, 核抗原 및 e抗原의 證明을 시도하였다. 入院당시 下肢 浮腫 외에 특기할 理學的 所見은 없었고, 檢査所見은 血清 albumin值 3.4 g/dl, creatinine值 1.0 mg/dl, SGOT 40 IU/L, SGPT 52 IU/L 였으며, 24時間 尿蛋白總量은 2.37 g이었다. 血中 B型肝炎바이러스 表面抗原, 核抗原, e抗原과 RA 因子는 陽性이었고 寒冷球蛋白은 陰性이었으며, 血清補體值는 正常이었다.

光學顯微鏡檢査上 基底膜의 肥厚, spike, mesangium 확장, 分節性 變化가 관찰되었고, 電子顯微鏡檢査

上 上皮下部는 물론 內皮下部와 mesangium 에도 沈着을 보였다. 免疫螢光檢査에서는 주로 基底膜을 따라 IgG, IgM, C₃, 纖維素原의 瀰慢性 沈着이 관찰되었다 (class Vb).

B型肝炎바이러스 表面抗原과 核抗原은 각각 토끼와 염소의 抗血清을 이용하여 PAP(peroxidase-antiperoxidase)法으로 檢査하였다. e抗原은 日本 Jichi 大學에서 monoclonal 抗體法으로 얻은 HBe(Fab')₂에 FITC를 結合시켜서 사용하였다. 그 結果 表面抗原과 核抗原은 基底膜과 mesangium, e抗原은 주로 基底膜에 瀰慢性 沈着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所見은 B型肝炎바이러스에 의한 糸絨體腎炎에는 바이러스의 여러 抗原이 關여하고, 동일 患者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抗原에 의한 손상이 동시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25 -

신증후군 환자의 고지혈증에 있어서 procetofen (Lipanthyl®)의 치료 효과

전남의대 내과
 문희식·양승호·강영준

신증후군 환자에서 고지혈증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왔으며, 이러한 환자들에서 혈청지질치를 떨어뜨리는 치료는 신증후군 환자의 예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연구자들은 신증후군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procetofen(Lipanthyl®)투여 전후에 있어서 혈청지질치, 단백질 및 알부민농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procetofen 투여전 혈청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352.67±102.37 mg/dl로서, 투여후 농도 237.80±83.98 mg/dl에 비해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01).
- 2) Procetofen 투여전 혈청 Triglyceride치는 288.00±107.63 mg/dl로서, 투여후 농도 231.77±107.48 mg/dl에 비해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5).
- 3) Procetofen 투여전 혈청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39.87±10.83 mg/dl로서 투여후 농도 43.07±9.69 mg/dl에 비해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5).
- 4) Procetofen 투여 전후의 총혈청단백농도 및 알부민 농도는 4.91±1.35 g/dl; 6.07±1.45 g/dl 및 2.69